

# “穴과 明堂”의 關係를 통하여 본 韓國傳統建築空間의 中心概念에 關한 研究

俞 在 賢  
建 築 學 科

## 〈要 略〉

本論文에서는 風水地理의 “穴과 明堂”의 關係와 韓國傳統建築空間의 基本要素인 “本殿과 中庭”의 關係를 對應시켜 이를 통해 韓國의 中心概念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고, 이것을 다시 Eliade의 Image of Center概念과 比較하여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즉, 韓國傳統建築은

1. 世界模型(*image mundi*)를 모방하여 만든 小宇宙(microcosm)이다.
2. 明確 領域概念인 局을 가지고 있다.
3. 中心으로 향하는 상징인 通路인 抽(axis)를 가지고 있고, 그 進入의 段階마다 상징적인 門(opening)을 가지고 있다.
4. 局의 内部의 中心(center)을 穴이라 하는데 그 穴에 세우는 本殿은 宇宙水(cosmic tree)의 상징이며 이곳이 聖의中心이 된다.
5. 聖의 中心인 穴앞에 中庭(明堂)을 가지고 있고 이곳이 聖과 俗(The Sacred and the Profane)이 단나는 곳으로 俗의 中心이 된다.

## A Study on the “Center” Concept of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Space in Reference to the “Hyul and Myoungdang” Relation of the Feng-Shui Theory.

Yoo, Jae-Hy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bstract〉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Korean “Center” concept by comparing the “Hyul and Myoungdang” relation of Feng-shui theory with the “Main Building and Frontyard” rel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 compared the Korean “Center” concept with “The Image of Center” concept by Mircea Eliade and concluded as followings.

1.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Microcosm imitating Cosmic Image(*imago mundi*)
2. It has the territorial concept, “Koog”(局)
3. It has the “Axis”(抽) which leads to the “Center” and “Openings”(門) at every stages of entering.
4. It has the “Hyul”(穴) at the center of the “Koog”(局) The Main Building is constructed on this “Hyul” and becomes the Cosmic Tree. The “Hyul” is the Sacred Center of the Korean architecture.

5. It has the “Myoungdang”(明堂) in front of the “Hyul”(穴). The frontyard (Myungdang) is the meetingplace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Myoungdang” is the Profane Center of the Korean architecture.

이하에 韓國의 Center概念을 確立하 보고자 한다.

## I. 序 論

建築은 人間의 思考와 意識構造의 具體的 形象化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傳統建築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가장 根源의 方法은 그 建築物의 思考的 理論의 背景을 理解하는 것으로 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鄭宙國氏는 韓國建築樣式論에서 傳統繼承의 두가지 길을 論하면서 表象意志에 對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表象意志에 對한 問題는 造形이란 人間의 血脈에 흐르는 先天的性質과 아울러 오랜 時日 차라난 母社會의 여러 條件들이 混合讓成되어 表現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韓國의 思維가 建築物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研究하여야 한다.”<sup>(1)</sup>

韓國의 思想中의 하나인 風水地理說을 通히 韓國 傳統建築의 理論的 背景을 밝혀 보려는 試圖은 이 點에서 妥當함을 가지고 있다.

風水地理說은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穴과 明堂은 그 전체계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階層을 갖고 있다.

本 論文은 이러한 風水說의 穴과 明堂의 關係를 韓國傳統建築에 應用하여 空間概念의 中心要素를 抽出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의미

첫째, 穴과 明堂의 概念을 明確하게 定義하여 이것이 傳統建築空間의 어느 要素와 對應하는지를 밝히고,

둘째, 傳統建築의 類型별로 實例를 比較分析하여 建築空間의 位置關係를 把握하고,

셋째, 傳統建築에 般에 흐르고 있는 共通概念을 抽

## II. 穴과 明堂의 關係

### 1. 穴 論

“朝鮮의 風水”에서 村山智順은 다음과 같이 穴을 定義하고 있다.

「穴—龍脈中 가장 生氣가 聚結하는 點」이다. 즉 精한處가 있다. 此處를 「穴」이라고 한다. 穴은 鍼灸學上 人體의 要處 卽 鍼灸를 施하는 處를 「穴」이라고 말하는 것과 同一概念에서 나온 것이다.<sup>(2)</sup>

風水에 있어서의 穴이라는 概念은 大體의 있어서 經穴의 意味와 같다고 定義하고 있는데, 이것에 더하여 朱子는 山陵議狀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所謂穴之法 譬如針灸 自有定一之穴而不可 有毫釐之錯」<sup>(3)</sup>

침을 놓을 때 그 位置가 바르지 못하면 生命에 지장을 주듯이 風水點穴時 그 位置가 바르지 못하면 生氣를 받지 못하여 生龍이 死龍이 되고 吉局이 凶局이 될을 먼저 國庫지 禍福으로 이것을 警戒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風水點의 誤라고 일컫어지는 青鳥經(4)에서는 差以毫釐謬以千里라고 하고 錦囊經(5)에서는 「毫厘之差禍福千里」라고 하여 이점을 警戒하고 있다.

「眞穴은 天定點」라든지 「以千里來龍入穴 惟融八尺之穴」라든지 「三年尋龍十年點穴」등의 古句들은 바로 이 點穴의 어려움을 表現한 말이다.

青鳥經은 穴에 關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不蓄之穴是謂腐骨不及之穴生人龍滅陰陽之火龍棺收柳背門之穴寒水滴聚其爲可畏可不慎哉」<sup>(6)</sup>

(1) 鄭宙國, 韓國建築樣式論, p.15, 一志社, 1974.

(2)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 昭和六年, 彰行社, 瀨光大學民俗學研究所, 1971.

(3) 村山智順, 洞窟書, p.99.

(4) 青鳥經은 “時大 青鳥先生이 지은 風水書로 穴을 探尋할 秘訣의 訣傳의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青鳥先生 籍籍, 先生 濟州人, 世傳地理陰陽之術而失其名 吾郡廣務書, 其經曰爲讀者 卽此書也, 先生之書簡而誠, 約而當, 誠哉世陰陽家書之冠也.”

(5) 金囊經은 許의 都梁이 지은 것으로 一書 「落經」이라고 하는데 法法 卽 張宅의 體類라고 있다. 唐의 空輿書가 이것을 變하여 宋지 宋忠의 보관하였기하여 金囊經이라고 하였다.

(6) 青鳥經, 不蓄奇經, p.3, 前內閣板本, 吳昌壽, 昭和三年(青鳥經은 李吉烈經 許의 洞窟書 中 首領의 書로 傳記되어 있다.)

不蓄之穴이라 함은 山이 包藏 즉 左靑龍, 右白虎와 같은 穴을 둘러싸는 山勢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고 不及之穴이라 함은 山이 朝山, 對山, 案山等 穴前에서 拜禮하는 山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고, 騰漏之穴은 空缺이 있어 生氣가 備蓄되지 못하는 것을 意味하며 背囚之穴이란 幽陰하여 감혀있는 듯한 形상을 말한다.

즉 穴이란 穴을 容위하는 山勢를 忌느려야 하고 朝對山을 갖추고 空缺이 없고 幽陰하지 않아야 한다고 說明할 수 있다.

胡舜申은 地理新法<sup>(7)</sup> 基穴論에서, 蔡成禹는 明山論<sup>(8)</sup> 穴法第五에서 各各 穴法大綱을 論하고 있으며 그 內容은 大同少異하다.

以上에서 본 것과같이 古經에서 다루고 있는 穴論은 陰宅에 中心을 두고 서술하였고 주로 周邊形勢와 穴形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므로 傳統建築의 解釋에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穴을 具體的으로 表現하면 陰宅에 있어서는 바로 屍身을 놓히는 자리이고, 陽宅에 있어서는 主建物을 세우는 자리를 意味하고 있다.

陽宅三要<sup>(9)</sup> 卷一 陽宅總綱條에 陽宅에 있어서의 穴에 關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京都以皇城內城作主省城以 三司衙署作主州縣以公堂作主儒學以文廟作主 庵觀寺院以正殿作主 紳士百姓以高房作主」

여기서 말하는 作主라함은 三要論에서 말하는 主房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陽宅에 있어 穴의 자리에 바로 이 主房 또는 主建物を 세우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本論에서 使用하는 穴의 概念은 各各의 建築物에 있어서의 本建物 내지는 가장 位階가 높은 聖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意味하는 것으로 限定하고자 한다.

## 2. 明堂論

朝鮮의 風水에서는 明堂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이것은 穴前(墓에서는 墳前, 陽基에 있어서는 主建築物의 前方)의 地에 있는 靑龍白虎에 의해 둘러싸여진 곳을 말한다. 이것은 内外의 區別이 있어, 穴의 直前平坦한 地(墓에서는 墓板이라고 稱하는 處, 陽基에 있어서는 主建物의 前庭)를 內明堂이라고 稱하고, 그것보다 前方內明堂에 비하여 廣大한 平地를 外明堂이라고 分稱한다. 이 明堂이라고 하는 名稱은 天子가 宗廟의 拜賀를 받는 곳을 明堂이라고 하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 곳이 穴에 對해 參拜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이다」<sup>(10)</sup>

天子에게 절하는 곳, 또는 君臣이 모여 政事를 議論하는 곳이라는 뜻의 明堂을 風水用語로 借用하고 있지만 陽宅의 경우는 實質的으로 이와같은 上下主從의 關係가 이루어지는 곳을 意味하게 된다.

즉 宮殿에서는 임금과 臣下가, 寺刹에서는 佛과 神도가, 書院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家庭에서는 家長과 食口下人들이 모여서 交會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明堂이기 때문이다.

內明堂은 다시 小明堂과 中明堂으로 나누고 있는데 小明堂은 穴의 直前に 있는 平坦한 곳이고 中明堂은 交會의 意味를 가지고 있고 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靑龍白虎에 의해 둘러싸여진 곳을 말한다.

外明堂은 靑龍白虎의 外部에 있으며 案山의 앞에 있는 廣大한 곳으로 融聚의 뜻이 있고 大明堂이라고 稱한다.(圖1參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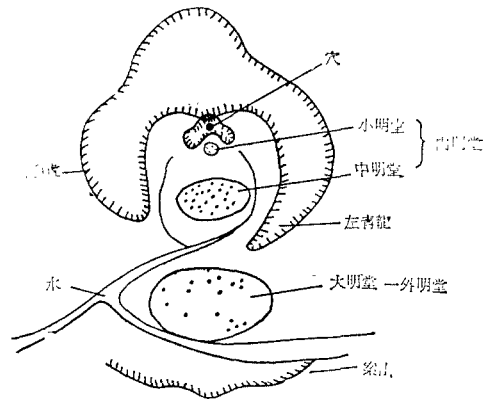


圖 1. 明堂圖

(7) 地理新法은 明人 胡舜申의 저술로서 風水書中에서 郭璞의 葬經을 주로참고하여 陰宅보다는 陽宅 즉 定都建國遷州立縣을 주로하고 있다. 李朝初 漢陽의 遷都에 理論的 背景이 되었고 經國大典 陰陽科 試驗科目으로 선정되어 있다.

(8) 明山論은 靑烏, 胡舜申과 더불어 陰陽科의 三大基本書로 선정되어 있는 重要한 經典으로 北嶽老人蔡成禹가 지은 風水書이다.

(9) 陽宅三要是 北直磁州趙廷棟玉材氏著로 陽宅에 있어서의 門, 主, 灶三要의 相關關係로 吉凶을 論하고 있으며 그 對象을 陽宅의 거의 모든 種類의 建物에 대해 論하고 있다.

(10) 村山智順, 前掲書, p.16-17.

人子須知<sup>(11)</sup>에서는 定穴法の 하나로 “明堂을 보아 穴을 定한다”라고 論하고 있고 楊公<sup>(12)</sup>은 “明堂이 반듯해야 穴이 된다”고 하고 琢玉斧<sup>(13)</sup>에서는 明堂은 水城을 등지지 않는다”라고 各各 明堂을 說明하고 있다.

明山論 第七 明堂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夫明堂者 天下所以 朝天下取穴而取明堂所以 受山之朝也 故穴有明堂者謂之天心正穴 無明堂者謂之無鬼之龍且明堂有內有外…」<sup>(14)</sup>

이상의 諸論을 綜合하면 明堂은 穴을 構成하는데 必須不可 缺한 要素임을 알 수 있다.

陽宅에서의 明堂의 概念을 쉽게 풀이하면 住宅에서는 前庭 또는 中庭, 寺刹에서는 大雄殿 앞 空間, 宮에서는 勤政殿 앞 空間, 書院等에서는 講堂의 前庭等으로 對應시킬 수 있다.

明堂이 갖는 意味는 拜禮, 交會, 融結等の 基本的 屬性以外에 이곳이 바로 坐向을 定하는 基準點이 되고 있다는 데서 더욱 重要한 뜻을 가지고 있다.

朝鮮의 風水에서 坐向을 定義하며 다음과 같이 明堂을 論하고 있다.

「坐向一穴의 中心, 陽基에 있어서는 主屋을 세운곳, 陰宅에 있어서는 棺을 藏한 곳을「坐」라고 하고 그「坐」의 正面하는 方位를「向」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坐向은 一直線에 있고, 이것을 定하기 위해서는 明堂(內明堂)의 中央에 指南針을 설치하고 磁針의 回轉軸과 坐를 結付한 線이 甲方位위를 지날때 이坐를 甲坐라 하고 이線의 延長線이 反對側의 乙方位를 지날때 이것을 乙向이라고 부른다.」<sup>(15)</sup>

陽宅三要卷一 靜宅一 盤看法條에서는 下羅盤位置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凡看靜宅于天井用尺分清正中下十字線 將羅盤放于天井十字正中心定準二十四山向…」

여기서 말하는 「天井十字正中心」<sup>(16)</sup>이라는 말은 바로 明堂의 中心을 意味하고 있다.

(11) 人子須知는 明人 徐善述·徐善繼兄弟에 의해 著述된 風水書로 諸書諸論을 叢集하여 소개하고 많은 寶位를 들어 例說하고 있다. 一名 地理大全, 明堂全書라고도 한다.

(12) 楊公은 唐僖宗時 帝室地師이며 光祿大夫 大庾縣師인 楊筠松을 말한다. 風水를 大衆에게 通俗하게 傳授한 求貧을 하던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求貧楊公이라 하였다는데서 楊公이란 이름이 연유하고 있다.

(13) 琢玉斧는 明人徐之鏡等이 撰한 籍으로 이 地理書名을 琢玉斧라 한것은 山川은 玉의 素材인 長河의 江流는 琢玉하는 良工이고 古今書籍은 斧斤으로 비유한데서 유래한다.

(14) 蔡成禹, 前揭書 p.361

(15) 村山智順, 前揭書, p.20.

(16) 天井이라는 것은 中國의 住宅이나 公共建築物에 있어서 中庭또는 前庭을 가리키는 用語이다.

(17) 民宅三要는 竹訥 孫璣慈의 著書로 中國의 陽宅三要를 原典으로하여 朝鮮의 民家의 實例를 採集하고 朝鮮의 實情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18) 村山智順, 前揭書 p.14.

民宅之要<sup>(17)</sup> 卷一 一太極下羅法條에서는 「天井」이란 用語대신에 「於院中」이란 用語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이고 一般家相學에서는 「太極」이란 用語를 宅地中心이라고 使用하기도 한다.

즉 天井, 院中, 太極이란 用語모두가 明堂과 같은 뜻이므로 明堂은 坐向의 中心點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傳統建築의 거의 모든 種類의 建物이 中庭形式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明堂에 대한 보다 明確한 定義와 關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傳統建築의 全體를 一貫하는 하나의 共通要素가 抽出되리라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 3. 砂 論

朝鮮의 風水에서는 砂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砂—「穴」의 周圍의 形勢를 砂라 한다. 이것은 古人이 好適한 山勢地理를 說示하거나 相地術을 傳授할 때 砂를 使用하여 形勢를 描寫하는 경우가 많다. 一定地의 山水形勢를 부를때 보통 이것을「砂」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sup>(18)</sup>

砂에는 네가지 種類가 있어 이것은 四神砂라고 한다. 金囊經에는 四神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夫葬以左爲青龍右爲白虎前爲朱雀, 後爲玄武… 玄武乘頭 朱雀翔舞青龍蜿蜒白虎踞蹠 形勢反此 法當敬死…」

青, 白, 朱, 玄은 五行色을 東青, 西白, 南朱, 北玄 中央黃이라고 하는데서 유래하고 여기에 四天動物인 龍虎雀龜를 각각 결합하여 四神砂를 名命한 것이다.

따라서 玄武는 고개를 치든듯이 우뚝해야 하고 朱雀은 날개를 퍼서 춤추는 듯하여야 하고 青龍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에워싸야하고, 白虎는 딱 버티고 서서 노려보는 형세를 가장 吉한 形勢로 생각하고 있다.

青龍白虎, 朱雀玄武를 나누어서 論하면 다음과 같

다.

(1) 靑龍白虎

龍虎의 임무는 衛護와 藏風을 돕는 것으로 生氣를 貯積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은 爲해 龍虎의 山勢가 必要하나 때로는 水로서 이를 代用하는 경우도 있다.

孔子의 易經 文言傳에 「風從虎」라는 句節이 있듯이 中國과 韓國의 傳承에 虎는 風을 左右하는 動物로서 믿어지고 있고 龍은 雲을 불러 雨를 내리게 하는 神物로 숭배되고 있다. 風水의 原義가 「藏風得水」<sup>(19)</sup>와 관련이 되었던듯이 風을 부르는 虎와 水를 내리는 龍이 穴을 보호하는 神物로 配置되었음은 當然한 일인 것이다.

靑龍白虎는 二重三重으로 되어있는 것을 吉하게 여기고 있어 穴을 가까이 응위하고 있는 것을 內靑龍內白虎라 하고 다시 이 內靑龍內白虎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外靑龍外白虎라고 하고 있다.

또한 龍虎는 三格이 있는데 本身龍虎는 龍虎가 穴後의 來山으로 부터 左右에 양입술같이 發出하고 있고 外山龍虎라는 것은 來龍即本身으로 부터가 아니고 兩旁의 山이와서 本身을 抱擁하는 것이고 湊合龍虎라는 것은 龍虎의 어느 하나는 本身으로부터 出發하고 다른 하나는 外山으로 부터 出發하여 合하여 龍虎를 形成하는 것을 말한다.<sup>(20)</sup>

이상에서 說明하고 있는 龍虎를 陽宅에서는 담장을타리, 회랑, 本建物 앞에있는 무속건물 등으로 對應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大部分의 建築이 本建物만 우뚝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위의 形勢를 補完하고 있는 施設物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靑龍白虎의 形態를 갖추어 本建物을 保衛하려는 意圖에서 비롯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靑鳥經 龍虎論條에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龍虎者如人之股肱家之墻垣 雖完棟樑不實則如人之五臟受病何以用乎是乎無龍虎者以水代之亦無妨」

(2) 朱雀玄武

靑龍白虎가 相補關係인 것에 비해 朱雀玄武는 主賓關係라고 말할 수 있다.

玄武垂頭는 凹形으로 陰來를 意味하는 主人이고 朱雀翔舞는 凹形으로 陽受를 意味하는 賓客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玄武는 四神砂 중에서도 主位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局과 穴의 成立이 不可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통 後山, 主山, 鎮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玄武의 임무는 祖山에서 부터 내려온 生氣를 바로 穴에 注入시키는 것이다. 마을의 경우나 都邑形成의 必須的인 要素의 하나인 背山의 思考는 바로 이 玄武에서 由來하고 있고 平地에서는 後園에 나무등을 심어 玄武를 形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朱雀은 玄武에 應對하는 山으로서 가까이 있는 낮은 山을 案山이라 하고 멀리 있는 높은 山을 朝山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主山에 對하여 마치 賚이 主人을 대하듯 臣이 君을 대하듯 子가 父를 대하듯 婦가 夫를 대하듯이 端正淸秀하고 반드시 主山보다 낮아야 吉하다고 한다.

朱雀은 때로 池와 水로서 대신할 때가 있어 臨水의 思考는 여기서 由來하고 있다. 上流住宅에 있는 池塘은 바로 이 朱雀을 意圖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상에서 論한 바와 같이 靑龍白虎 玄武朱雀四神은 穴을 擁衛하기 위해 必須인 것으로 어느 하나도 缺하여서는 않된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傳統的으로 信守되어 온 四神相應의 吉地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陽宅의 경우)(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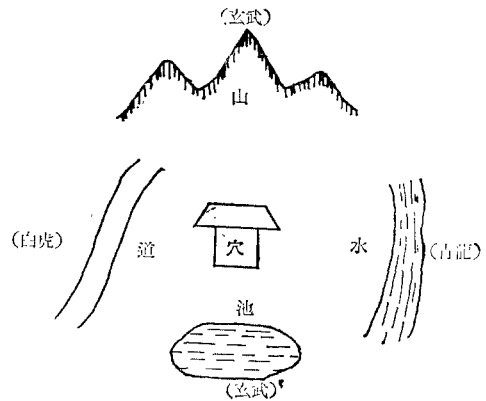


圖 2 陽宅 四神相應의 吉地圖

(19) 藏風得水라는 말은 郭璞의 葬經에서 由來한다고 人子須知的 著者 徐氏兄弟는 論風水名義條에서 主張하고 있지만 經曰氣乘風則散外水則止 古人聚之使不散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는 葬經의 句節은 靑鳥經의 文句를 利用하여 風水를 說明한 것으로 風水의 名義은 그以前부터 使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風水用語의 使用은 바로 이 靑鳥經에서 볼수 있다. 즉 「陰陽符合 天地交通 內氣萌生 外氣成形 內外相乘」風水自成」이라는 句節에서 「風水」를 使用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서 이미 漢代以前에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 村山智順, 前掲書 p.54.

## 4. 局 論

「穴」과 「砂」를 합하여 陽基도 되고 陰宅도 되는 하나의 一定한 規模의 形勢를 局이라고 한다.<sup>(21)</sup>

이것은 草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山川의 生氣가 融結되어 있는 곳으로 穴을 中心으로 靑龍白虎朱雀玄武가 응위하고 形勢를 말한다.

局의 形態는 크게 나누어 藏風局과 得水局으로 大別하는데 葬經에서는 「得水爲上 藏風次之」라고하여 得水局을 重要視하고 있다.

陽宅에서 例를들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開城과 같은 곳을 藏風局이라고 하고 서울과같이 背山臨水形을 得水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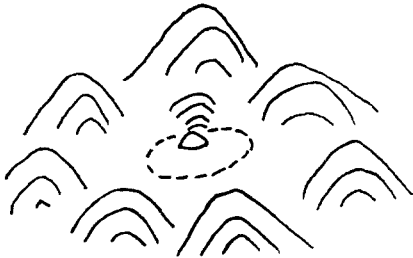


圖 3. 藏 風 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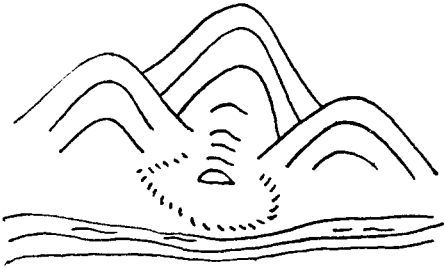


圖 4. 得 水 局

穴, 明堂, 四神砂를 綜合하여 山局形을 다음과 같이 圖解할 수 있다.

局理論을 陽宅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建築物이 있는 周邊形勢를 합하여 局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지만 小規模로 볼때는 담장이나 城으로 둘러싸여진 空間을 하나의 局으로 볼 수 있다.

(21) 村山智順, 前掲書 p. 14.

(22) 여기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生氣라는 用語는 郭璞의 葬經中 「葬者乘生氣也」라는 句節에서 出來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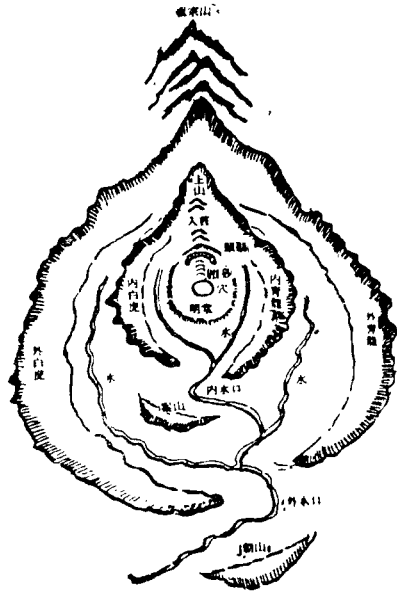


圖 5. 山 局 之 圖

이러한 前提下에 局의 位階를 論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5. 傳統建築에 있어서 “穴과 明堂” 關係의 重要性

“穴과 明堂”은 風水의 全體系속에서 가장 中心이 되는 要素로 位階上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關係를 傳統建築에 適用하여 보면 建築空間概念中 核心이 되는 本建築物과 그에 부속된 前庭의 關係로 對應시킬 수 있다.

즉 宮殿에서는 勤政殿을 穴로 볼때 品階石이 도열되어 있는 앞뜰은 萬朝百官이 拜賀하고 議政을 하는 明堂이라고 할 수 있고, 寺刹에서는 本尊佛을 奉安하고 있는 大雄殿을 穴로 볼때 塔이 서 있는 中庭은 信徒들이 모여 부처님께 拜禮하는 明堂으로 볼 수 있고, 書院에서는 넓은 大廳이 있는 本建築物을 穴로 보면 그 앞뜰은 書生들이 모여 工夫하고 스승께 경의를 표하는 明堂으로 볼 수 있고, 一般住宅의 경우 大廳에서 家長이 집안사람을 統率하고 재사를 지낼때 위패를 모시고 걸을하고 있는 것을 보아 大廳을 中心으로 하는 本建築物이 穴이요 안다당은 바로

明堂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關係를 要約하던 다음과 같다.

表 1. 風水와 傳統建築의 對應關係

風水局	陰宅	宮殿	寺刹	書院	住宅
穴 明堂	墳 塞 塞 板	勤政殿 前庭	大雄殿 前庭	本堂 中庭	大廳 中庭

集團陽基<sup>(23)</sup>의 例를 들면, 一國의 서울을 穴로 보면 國土가 明堂이 되고, 城안의 넓은 땅은 明堂이라고 할 수 있고 村落에서는 同姓部落의 경우 宗家宅을 穴로 보면 나머지 家屋들이 들어선 곳을 明堂이라고 할 수 있고 主山에 있는 寺廟等 信仰의 對象을 穴로 보면 마을 전체를 明堂이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이 關係를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集團陽基와 風水의 對應關係

風水局	一國	國都	都城	邑縣	部落	同姓部落
穴 明堂	서울 國土	宮殿 長安	政廳 城內	縣廳 縣內	寺廟 마을	宗家 一般家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個人, 集團을 막론하고 모든 陽基는 그 中心에 “穴과 明堂”과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建築에 걸쳐 일관된 흐름을 抽出할 수 있는 根本的인 要因은 무엇인가? 이 問題에 對한 解答은 아마도 風水를 論하기 以前에 東洋人의 意識構造의 根底에 흐르고 있는 陰陽五行의 抱括的인 哲學體系와 天神을 믿는 原始的인 信仰體系에서 찾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風水의 理論的인 背景이 바로 이러한 哲學과 信仰體系의 應用임을 감안할 때, 일단 風水의 體系로 그 要因을 分析하여 보고 그것을 다시 陰陽五行으로 환원시켜 보는것도 可能한 것이다.

風水의 核心要素인 “穴과 明堂”을 통해 傳統建築空間概念의 中心要素를 찾아 낼 수 있다고 假定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23) 集團陽基라 함은 個人陽基가 一國의 宅地의 風水效果를 論하는 것에 대해 國, 州, 郡, 都, 邑, 部落等 多數人의 居處의 風水效果를 論하는 것을 말한다.

(24) 마을 전체를 明堂이라고 볼 수 있는 根據는 朝鮮의 鄉土神祀 部落祭 p. 165~166에 있는 句節에 의한다. “...後山은 生氣를 蓄積調整하여 이를 明堂即 山下의 部落에 灌溉하는 要機이다.”

(25) 入首는 龍頭가 장차 局에 들어 가려고 하는 지점을 말한다.

(26) 頭腦는 入首와 穴의 接合點으로 높고 盛한 곳이다. 龍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頭腦라 한다.

(27) 三寶, 寺刹이라 함은 佛敎의 三寶인 佛, 法, 僧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나라 三大寺刹로서, 通度寺를 佛寶寺刹, 海印寺를 法寶寺刹, 松廣寺를 僧寶寺刹이라 한다.

### Ⅲ. 風水와 傳統建築의 對應關係

#### 1. 類型別 對應關係 實例分析

##### (1) 宮闕—景福宮.

宮全體를 하나의 局으로 볼 때 正殿인 勤政殿을 穴位石이 도입되어 있는 內庭을 明堂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타 요소들의 對應關係를 圖表化하던 다음과 같다.

表 3. 宮闕과 風水의 對應關係

風水用語	宮殿配置	風水用語	宮殿配置
局	宮全體	內青龍	隆文樓側回廊
主山	神武門吳後園	內白虎	隆武樓側回廊
入首 <sup>(25)</sup>	交泰殿康寧殿	外青龍	建春門側牆壁
頭腦 <sup>(26)</sup>	思政殿	外白虎	西門側牆壁
穴	勤政殿	水口	錦川橋下御溝
內明堂	位石이 있는 內庭	案山	勤政門
外明堂	勤政門光化門	朝山	光化門

全體的인 配置를 보면 明堂과 青龍白虎를 內外에 가지고 있고 穴을 겹으로 護衛하고 있어 吉局을 形成하고 있다.

圖 5의 山局之圖의 典型的인 類形과 對應하여 볼 때 빠짐없이 각 要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宮闕의 配置에 風水가 미친 影響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寺刹—海印寺

寺刹 領域을 하나의 局으로 생각하면 本殿인 大寂光殿(一般的으로는 大雄殿)이 穴이고 三層石塔이 있는 中庭은 明堂이 된다.

國寶인 八萬大藏經을 奉安하고 있는 法寶殿및 修多羅藏은 穴뒤에 있어 頭腦와 對應할 수 있고 宮闕의 경우 中宮과 같은 重要한 位置에 配置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寶寺刹<sup>(27)</sup>中的 하나인 法寶寺刹이라고 불리우는 海印寺이므로 大雄殿 다음으로 重要한 位置에 八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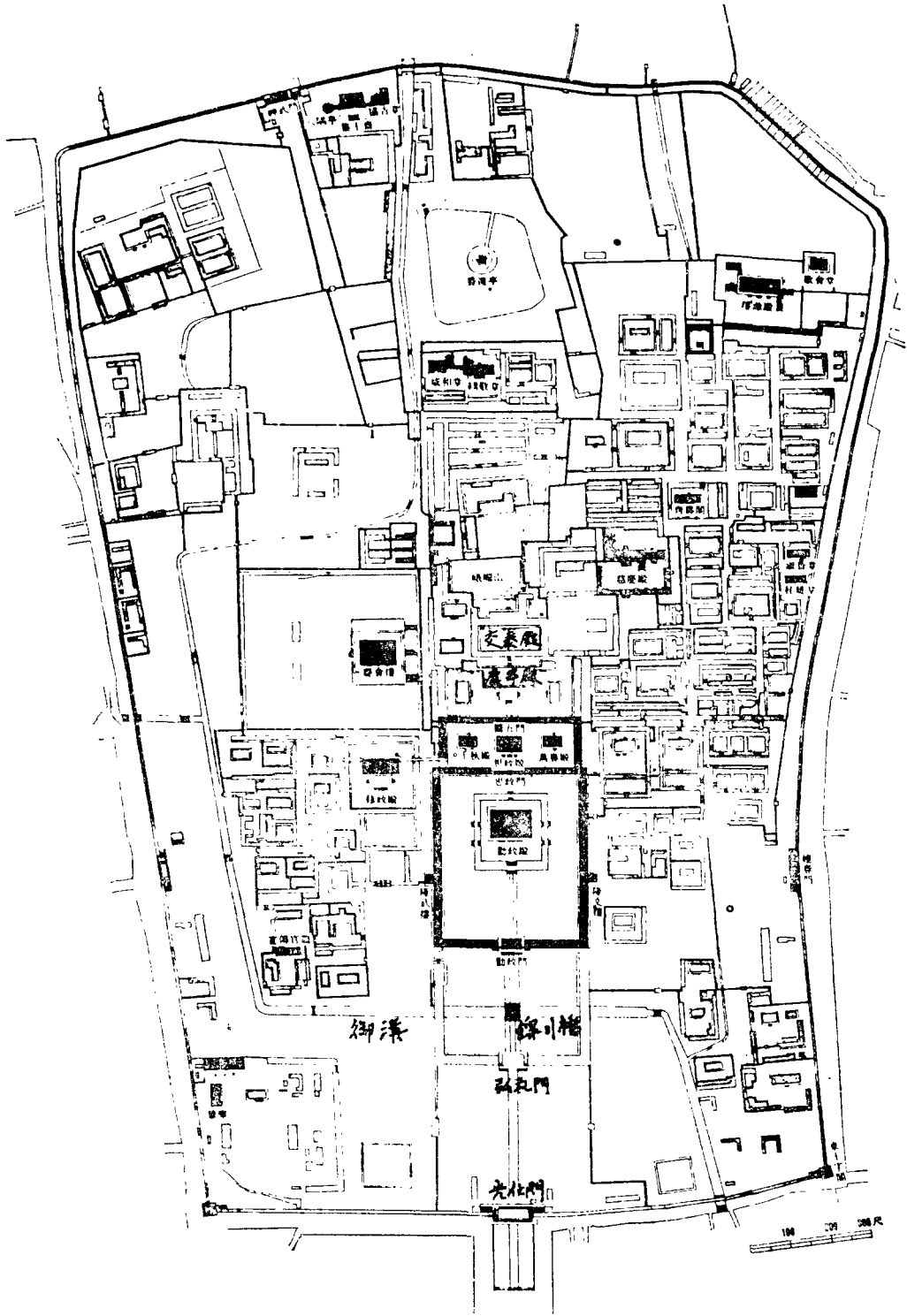


圖 6. 景福宮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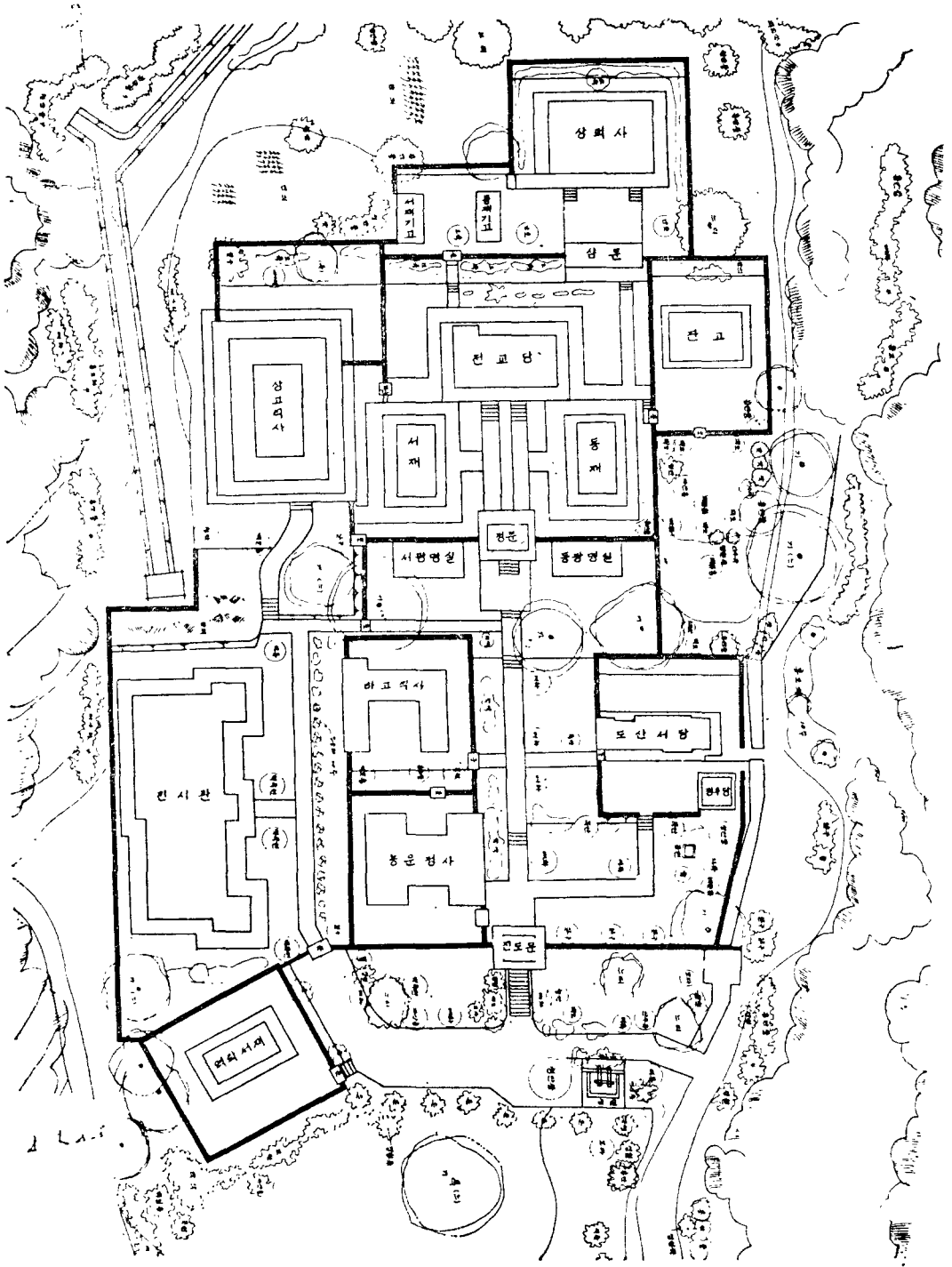


圖 8. 陶山書院 配置圖

大藏經을 奉安하고 있음은 매우 妥當한 일이다.

海印寺의 配置와 風水와의 對應關係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 4. 寺刹과 風水의 對應關係

風水用語	寺刹配置	風水用語	寺刹配置
局	寺刹全城	外明堂(大)	九光樓鳳凰門
主山	後山	內青龍	左側繞舍體
入首	法寶·殿後面	內白虎	窮玄堂經學院
頭腦	法寶·殿·修藏多羅	外青龍	左側山麓
穴	大寂光殿	外白虎	右水
內明堂(小)	大寂光殿直前	案山	九光樓
內明堂(中)	中庭	朝山	鳳凰門

(3) 書院—陶山書院

退溪李滉의 居處였던 陶山書堂을 포함하여 講堂인 典敎堂을 中心으로 配置된 陶山書院은 李朝書院의 代表的 類型이다.

書院을 하나의 局으로 보면 典敎堂을 穴로, 그 앞 內庭을 明堂으로 볼 수 있고, 기타요소들 對應시키면 다음과 같다.

表 5. 書院과 風水의 對應關係

風水用語	書院配置	風水用語	書院配置
局	書院全城	內青龍	東齋
主山	後山	內白虎	西齋
入首	後園	外青龍	板庫, 書堂
頭腦	상덕사	外白虎	각사·경사
穴	典敎堂	水口	足
內明堂	內庭	案山	정문
外明堂	前康	朝山	進道門

(4) 上流住宅—樊南宅

安東宜仁村 口字形집 중에서 가장 規模가 큰 집으로

表 6. 住宅과 風水의 對應關係

風水用語	住宅配置	風水用語	住宅配置
局	住宅全體	內青龍	南側사랑
主山	솔마당	內白虎	北側사랑
入首	後園	外青龍	南側담장
頭腦	(宗家집祠堂)	外白虎	北側담장
穴	분채(大廳)	水口	路
內明堂	안마당	案山	中門
外明堂	행랑마당	朝山	大門

退溪의 十四代孫인 李源弼氏宅이다.

佔地 1500餘坪에 90餘間집으로 현제는 南側 사랑과 별채를 빼면 70餘間의 巨闕이며 卯坐西向이 西向집이다.

집전체를 하나의 局으로 볼때 본채를 穴로, 안마당을 明堂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배치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對應關係로 要略할 수 있다.

2. 類型別 對應關係 綜合分析

(1) 平面上의 對應關係

위에서 例를 들은 景福宮, 海印寺, 陶山書院, 樊宅은 各各 規模와 配置의 差異가 있지만 모두에 共通되는 要素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뚜렷한 것은 “穴과 明堂” 關係로 풀이할 수 있는 “本채와 안마당”의 存在이다.

그외의 要素들은 用途에 따라 자유롭게 變형되고 있지만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配置概念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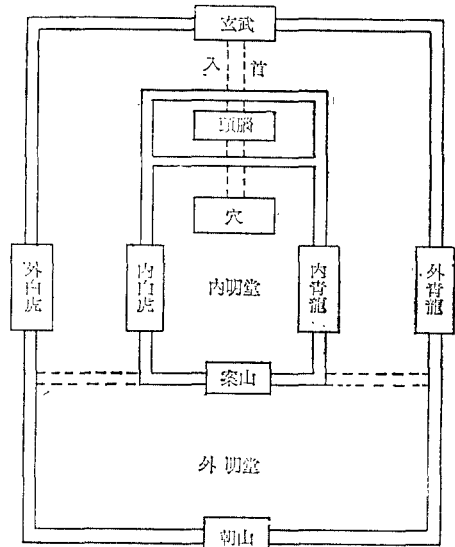


圖 10. 風水概念으로 對應시킨 傳統建築 基本配置方式

圖 6. 安東宣仁南樂宅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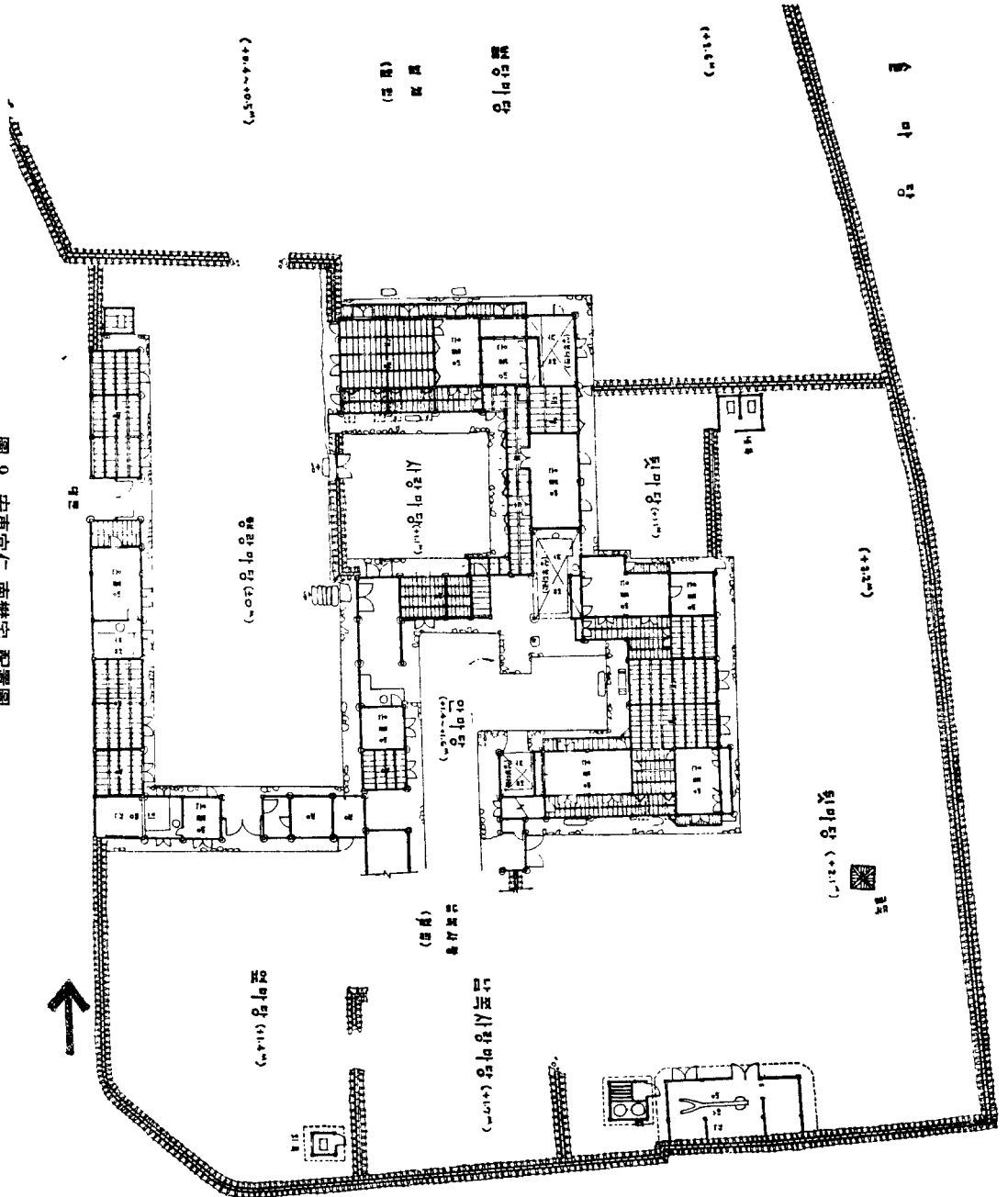


表 7 風水概念으로 對應시킨 傳統建築配 置要素

局	宮 闕	寺 刹	書 院	住 宅
玄 武	北 門	後 山	後 園	後 園 植 樹
頭 腦	中 宮	講 堂	文 廟 · 祠 堂	祠 堂 · 別 堂
穴	勤 政 殿	大 雄 殿	本 堂	本 齋
內 明 堂	內 庭	內 庭	內 庭	안 마 당
外 明 堂	前 庭	前 庭	前 庭	행 랑 마 당
青 龍	左 樓	左 殿 · 閣 · 舍	左 齋 · 舍 · 庫	左 사 랑 · 안 채
白 虎	右 樓	右 殿 · 閣 · 舍	右 齋 · 舍 · 庫	右 사 랑 · 안 채
案 山	勤 政 門	金 剛 門	中 門	中 門
朝 山	南 門	一 柱 門	大 門	大 門 · 行 廊

(2) 斷面上的 對應關係

韓國傳統 建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漸高形式이다. 段階的으로 進入해 나아가면서 漸漸 높아져 가는 形式을 말하는 것으로 그 頂點에 主建물을 配置하고 있다.

많은 寺刹들이 山地나 丘陵地 또는 약간의 傾斜地에 建築되어 自然스럽게 漸高가 되고 있고, 平地의 建物들에서도 基壇形式을 통해 意圖的으로 主建物の 높이를 높이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들은 實例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즉 景福宮의 장엄한 基壇, 海印寺의 높은 築臺, 陶山書院의 築臺, 樊南宅의 높은 大廳들은 바로 그러한 意圖를 實證하고 있다.

靑鳥經에서는 이점에 關해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勢止形昂潤後岡位至侯王, 形止勢縮前案回曲金穀室玉

大唐國師 楊筠松은 이 句절을 다음과 같이 註解하고 있다.

「勢止龍之住也 形昂氣之盛也 前則遇水而止後則支 壠而連如此之地可致貴也 形止勢縮 氣象之局促也 前案回曲 賓主之淺近也 如此之地 可致富也」

즉, 勢止라 함은 龍이 머무는 것이고, 形昂은 氣가 盛한 것이다. 앞에는 潤주 山來水가 있고 뒤가 岡하면, 즉 支壠이 연이어있으면 貴地라고 하였다. 形이 그치고 勢가 위축되고 氣가 局促하고 案山이 둥글게 둘러있고 賓主측 案과 穴이 가까운 땅은 富地라 하였다.

이러 案山論條에

「案山者應穴之 砂 端立留氣如朝如拜 拱揖者爲吉……中略……穴高則 宜遠 穴低則宜近」

즉 案者는 穴에 대하여 朝拜拱揖하는 형상을 吉하게 여기며 穴이 높으면 멀어도 되고 穴이 낮으면 가까워야 한다고 하였다.

斷面上的 對應關係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論旨에서 風水가 傳統建築에 미친 影響을 具體的으로 確認해 보았다. 이를 통해 傳統 建築의 모든 類型에 거의 例外없이 나타나고 있는 “穴과 明堂의 關係를 韓國傳統 建築空間概念의 中心要素로 設定하는게 큰 無理가 없으리라는 結論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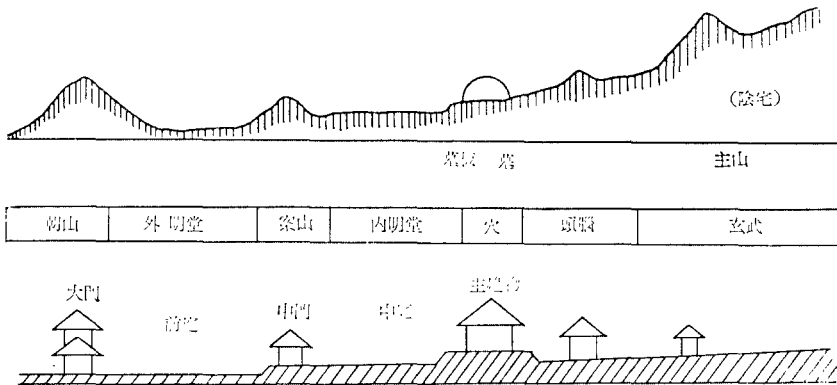


圖 11. 傳統建築과 風水의 斷面上的 對應關係

### Ⅶ. 綜合分析—韓國的 Center 概念으로서의 “穴과 明堂”

#### 1. 局과 穴의 位階分析

單位建物の 穴과 明堂關係는 그 範圍를 넓혀보던 地形 자체가 가지고 있는 本來意味의 風水의 穴과 明堂 關係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고, 그 範圍

를 좁혀보면 이른바 上席과 下席의 關係도 풀이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를 例를 들어 論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漢陽으로 遷都를 決定하고 宮基를 고를때 李太祖는 새로운 地를 잡지않고 高麗南京의 舊宮基에 세울 것을 명하였는데(28) 이 곳은 高麗 肅宗 때 南京 開創都監을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이 新都相地派遺一行의 建議에 따라 정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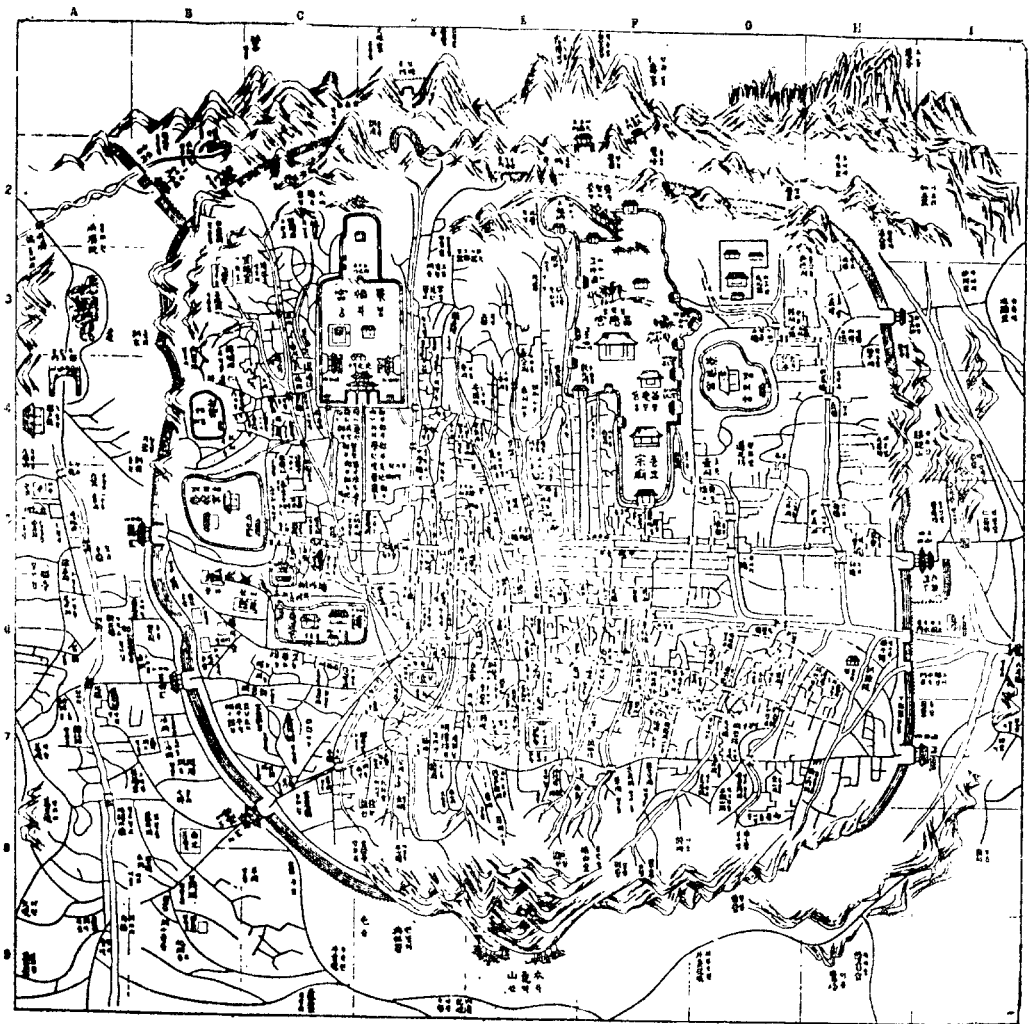


圖 12. 漢陽地圖(Royal Asiatic Society 1900년 판권)

(28) 李朝 太祖實錄 即位元年秋八月甲子の 條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遣三司右僉射李恬干漢陽府修葺宮室」

「三角山을 고르내리며 面岳의 南을 觀察하여 보니 그 山의 形勢가 秘記에 꼭 符合하고 있으므로 宮基는 이곳이 되는 없다고 하였다. 그 築宮의 計劃은 그 山勢의 主幹中心大脈이 등하는 곳에 宮基를 壬坐丙向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9)</sup>  
(여기서 秘記라함은 耀木 道先에 의해 쓰여진 道先秘記를 말한다.)

漢陽은 三角山을 祖山을 하고 그의 남쪽에 있는 白岳(一名 北岩, 또는 面岳)을 鎮山으로 하여 그 山麓에 宮闕의 基를 定하고 있다.

左에는 駱駝山을 靑龍으로 右에는 仁王山을 白虎로 南에는 南山을 案山으로, 冠岳山을 朝山으로, 漢江을 明堂水로 하는 완벽한 風水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漢陽을 하나의 局으로 볼때 그중 穴이 되는 곳이 바로 宮基이며, 明堂은 서울長安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勤政殿内部에 있어서도 殿閣을 하나의 局으로 볼때 임금의 寶座를 穴로, 寶座인 空間을 明堂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關係를 하나의 抽으로 連結하면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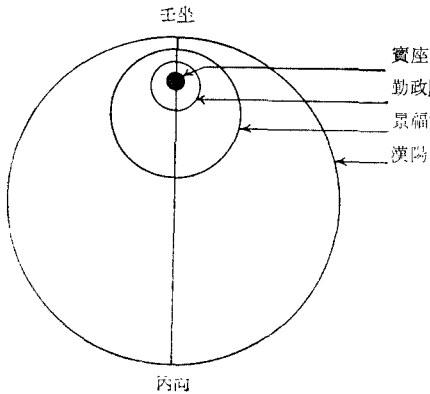


圖 13. 局과 穴의 位階圖

위의 圖式에서 局과 穴의 位階를 보면 局의 位階는 漢陽—景福宮—勤政殿의 3段階로 穴의 位階는 景福宮—勤政殿—寶座의 3段階로 說明할 수 있고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穴①은 서울長安을 明堂으로 穴②는 勤政殿인 中庭을 明堂으로 穴③은 寶座인 空間을 明堂으로 하여 明堂에도 3段階의 位階가 있음을 물론이다.

(29) 村山智順, 前掲書 p.675.

表 8. 局과 穴의 位階表

漢 陽	景福宮	勤政殿	寶 座
1段階	局①	→	穴①
2段階			↓
			局② → 穴②
			⋮
3段階			局③ → 穴③

이렇게 해서 政治關係의 中心이 되는 王의 자리는 精神的으로 가장 높은 位階에 있을 뿐만 아니고 物理的 空間에서도 가장 높은 位階인 穴中の 穴에 놓이도록 意圖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關係를 다른 建築에 適用하여 보아도 같은 結論에 도달할 수 있다. 즉 寺刹에서는 佛象이 놓이는 자리인 佛座를, 書院에서는 스승이 앉는 上座를 住宅에서는 家長이 앉는 上席을 각각 穴中の 穴이 되도록 配置하였고 이것들은 모두 宗教的位階, 教育的位階, 家族的 位階 意識을 그대로 空間的位階와 一致시키려는 意圖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 9. 局과 穴의 關係로 본 傳統建築의 位階表

	宮闕	國 都	宮 闕	勤 政 殿	寶 座
	寺刹	寺城(山)	寺 刹	大 雄 殿	佛 座
	書院	院城(山)	書 院	木 堂	上席(대청)
	住宅	村 落	住 宅	岩 龕	上席(대청)
風水 位階	局	→	穴		
			↓		
			局	→	穴
			⋮		
			局	→	穴

## 2. Eliade의 理論과 比較해본 韓國傳統建築의 領域概念과 中心 概念

지금까지 說明해온 바와 같이 局, 穴, 明堂의 關係를 통하여 韓國傳統 建築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脈을 發見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領域概念과 中心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점에 關해 林忠伸教授께서 다음과 같이 一次指

摘한 바 있다.

「즉, Eliade의 microcosm과 風水地理說의 局은 다같이 領域概念을 갖고 있으며, Centre가 前者에서의 垂直的要素인 한편, 山은 後者에서의 垂直的要素인 것이다.」<sup>(30)</sup>

Eliade의 Image of Center와 風水地理說을 對應시킨것은 卓見이라고 생각된다. 本章에서는 Eliade의 Image of Center와 함께 The Sacred and The Profane의 概念을 導入하여 韓國的 Center 概念을 確認해 보고자 한다.

Eliade는 聖과 俗 그리고 Center에 關係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ystem of the world

(a) a sacred place constitutes a break in the homogeneity of space

(b) this break is symbolized by an opening by which passage from one cosmic region to another is made possible

(c) communication with heaven is expressed by one or another of certain images, all of which refer to the axis mundi: pillar, ladder, mountain, tree, vine, etc

(d) around this cosmic axis lies the world, hence the axis is located "in the middle," at the "navel of the earth"; it is the Center of the World.<sup>(31)</sup>

要約하면 Sacred place는 空間이 斷絶 되어있고 Opening을 통해 그것을 상징시키고 있으며 天上과의 對話는 軸(Cosmic Axis)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中心이 바로 Center of the world라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을 風水地理說과 對應시켜 說明을 하면 左靑龍 右白虎 南朱雀 北玄武로 상징되는 境界를 통해 外部와 内部를 斷絶시키며, 大門, 中門으로 상징되는 Opening을 통해 進入이 되고 그 속에 穴이 있어 局의 中心은 이루며 그 中心은 垂直的인 要素로 되어 있다고 풀이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microcosm을 局으로, Center를 穴로 對應시켜 볼 수가 있으며, 穴前의 空間인 明堂은 엄격히 穴과 分離되어 穴은 聖의 中心으로 明堂은 俗의 中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韓國傳統建築에서 聖의 中心인 穴에 本建物を 세우고 또 그 中心에 "主"의 概念인 임금, 부처, 스승, 가장 등을 앉게 한 것은 바로 Center of the World에 그 World의 中心이 되는 人物을 일치시키려는 意圖로 볼 수 있고, 俗의 中心인 明堂에 "從"의 概念인 臣下, 信徒弟子, 食口가 모이도록 한 것은 그 中心에 대해 敬의를 표하려는 意圖로 볼 수 있다.

Eliade는 center of the world概念에 sacred를 결부하여 주로 聖域인 宗教的 상징물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것에 비해 韓國傳統建築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種類的 建築에 이 關係를 適用할 수 있는 데 이것은 風水地理, 陰陽五行等의 思想이 모든 建築에 골고루 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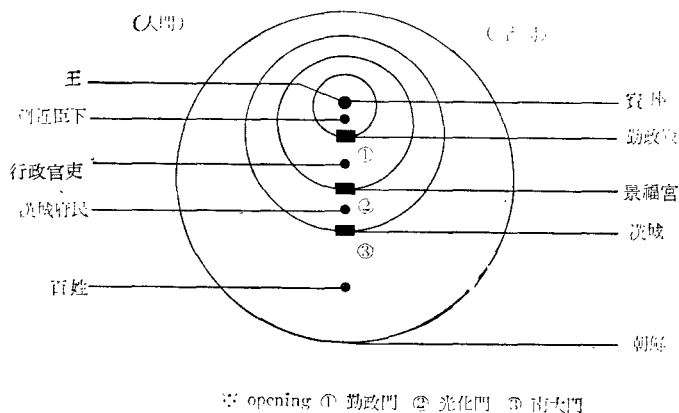


圖 14. 政治關係의 位階

(30) 林忠伸, 母空間의 原型 : 山과 天 UIT REPORT, 제8권 2호 p.33 1977.

(31)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A Harvest Book, 1959.



또한 Eliade는 神과 人間의 二元的 概念으로 聖과 俗을 論하고 있는 것에 비해 韓國傳統建築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몇 段階의 位階로 聖과 俗의 關係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傳統的인 儒敎的 身分秩序를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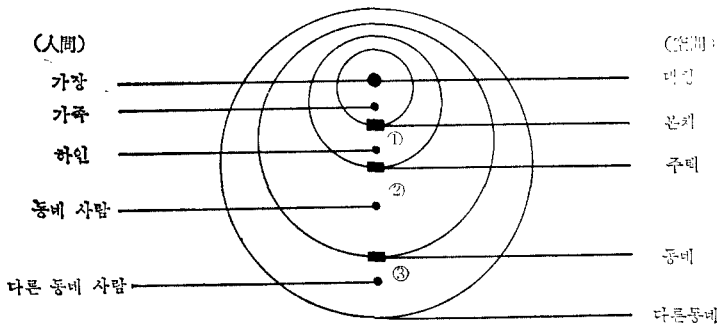
聖과 俗의 位階를 政治關係와 家族關係의 例를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漢城의 경우 平民에서 王에게 까지이르는 政治關係의 位階와 空間의 對應關係를 다음 圖表로 要約할 수 있다.

이것을 聖과 俗의 概念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表 10. 政治關係에 있어서의 聖과 俗의 位階

人間	王	側 臣	官 吏	府 民	百 姓	
聖俗의 位階	聖	→	俗			
	⋮					
	聖	→	俗			
	⋮					
		聖	→	俗		
		⋮				
				聖	→	俗
空間	寶 座	勤政殿	景福宮	漢 城	朝 鮮	



※ opening ① 中門 ② 大門 ③ 洞口

圖 15. 家族關係의 位階

表 11. 家族關係에 있어서의 聖과 俗의 位階

人間	가 장	가 주	하 인	동네 사람	다른동네 사람	
聖俗의 位階	聖	→	俗			
	⋮					
	聖	→	俗			
	⋮					
		聖	→	俗		
		⋮				
				聖	→	俗
空間	대 청	본 채	주 택	동 네	다른동네	

上流住宅의 경우 客에서 主에 이르는 家族關係의

位階와 空間의 對應關係를 對應시키던 다음과 같다.

이것을 聖과 俗의 概念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Eliade는 *axis mundi* (cosmic axis)에 關하여 이를 통해 Heaven, Earth, Underworld가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sup>(32)</sup> 韓國傳統建築에 있어서는 이러한 垂直的 抽외에도 明確한 水平的 抽을 가지고 있다. 圖 13, 14에서 보여 주듯이 南大門—光化門—勤政門을 지나는 政治的 抽과 洞口—大門—中門을 지나는 家族關係의 抽이 存在하고 寺刹에서는 一柱門—金剛門—不二門의 宗教的 抽이 存在하고 있다.

風水에서는 이 水平的 抽을 坐向과一致시키려 하였고<sup>(33)</sup> 領域의 段階마다 明確하게 Opening을 상징

(32) M. Eliade, op, cit p. 36.

(33) 景福宮의 경우 서울 地形의 抽과 宮基의 抽을 壬坐丙向으로 맞춘것이라든지, 安東宜仁마을의 경우 地形이 乙坐申向이라 대부분의 집들이 乙座申向을 하고 있는 예를 들수 있다.

하는 門을 만들고 있으며 그 門은 樓閣大門이나 솟을 大門 등 엄숙하고 정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俗에서 聖으로의 進入을 분명하게 규정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韓國의 傳統建築이 風水地理說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多角度로 確認해 보았지만 아직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根本인 理由는 밝히지 못하였다.

여기서 Eliade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고자 한다.

[The Construction of the sacred lodge thus repeats the cosmogony, for the lodge represents the world<sup>(34)</sup>

(성스러운 小屋의 創建 이 宇宙創造를 再現한다고 한은 결국 이 작은 建물이 世界를 具現하기 때문이다.)

Eliade는 建設을 世界模型(imago mundi)를 再現시켜 또하나의 小宇宙(microcosm)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風水地理說은 陰陽五行天文思想을 綜合하여 宇宙의 形象을 圖式化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風水地理에 따라 建築을 한은 결국 宇宙의 形象을 再現하고 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여 創建한 小宇宙의 中心에 天上과 통하는 宇宙木(cosmic tree)를 세운것이 바로 本建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傳統建築은 明確히 世界模型을 모방하여 만든 小宇宙라고 말할 수 있다.

## V. 結 論

### 1. 要略結論

첫째, 韓國의 傳統建築은 風水地理說과 密接한 關聯이 있으며, 이것은 世界模型(imago mundi)을 모방하여 小宇宙(microcosm)를 創造하려는 意圖의 結果라고 생각된다.

둘째, 韓國의 傳統建築은 明確한 領域概念(microcosm, 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各各 政治的, 宗教的, 社會的 身分秩序의 反影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韓國의 傳統建築은 그 中心으로 향하는 상징적 通路의 軸(axis)을 통한 多段階의 領域進入方式을 가지고 있으며 그 段階마다 상징적인 門(opening)에 의해 連結되고 있는데 이것은 建築에 있어서의 通過禮儀(rite of passage)를 상징하고 있다.

(34) M. Eliade, op. cit., p. 46.

넷째, 韓國의 傳統建築은 明確한 中心概念(Image of Center)를 가지고 있으며 그 中心(center of the world, 穴)에 垂直的要素인 本建物(本殿, 本堂, 本채)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宇宙木(cosmic tree, cosmic pillar)을 상징하고 있고 聖(sacred)의 中心이 된다.

다섯째, 韓國의 傳統建築은 그 中心建物(穴)아래 반드시 넓은 中庭(明堂)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聖(sacred)과 俗(profane)이 만나는 곳으로 俗(profane)의 中心이 된다.

### 2. 傳統建築의 繼承을 통한 現代韓國建築의 寄與可能性

風水地理說이 吉凶과 關聯되어 지금까지 世人의 批判을 받아온 것이 事實이지만 보다 根本的인 觀點에서 볼 때는 그것은 古代人이 가지고 있던 宇宙觀, 世界觀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즉 風水地理說을 통한 傳統建築의 建設은 바로 宇宙創造의 再現이라는 엄숙한 儀式인 것이다.

現代韓國建築의 無秩序와 混亂은 바로 이러한 哲學과 理念의 不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傳統의 급작스런 斷絶과 無分別한 西洋文化의 導入을 통해서 彷徨하고 있는 現代韓國建築이 傳統建築의 叡智를 바탕으로 새로운 傳統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일이다.

本論文에서는 “穴과 明堂”의 關係를 통하여 韓國의 中心概念을 抽出해 보고자 試圖하였는 바 이 “穴과 明堂”의 關係는 韓國傳統建築의 核心的인 要素의 하나로 繼承시킬 만한 充分한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本論文은 작은 出發에 不過하지만 이러한 研究의 蓄積은 바탕으로 하여 建築에 있어서의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을 克服하고 健全한 國際主義의 地域主義(Localism, Nationalism)에 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參 考 書 籍

1.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
2.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3.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昭和六年),

- 民間信仰資料叢書(五), 圓光大民俗學研究所, 影印本, (1971)
4. 青島先生, 青島經, 大唐國師楊筠松註, 前內閣板本, 廣韓書林, (昭和五年).
  5. 胡舜甲, 地理新法, 風水地理總書, 景仁文化社, (1969)
  6. 蔡成禹, 明山論, 風水地理總書, 景仁文化社, (1969)
  7. 徐之撰外, 琢玉斧, 風水地理總書, 景仁文化社, (1969)
  8. 趙廷棟, 易宅三要, 卷一~卷二, 上海.
  9. 孫瑜憲, 易斷繪圖朝鮮民宅三要, 卷一~卷六, 竹納窩, (昭和四年).
  10. 金明濟, 八十八向真訣, 三信書籍, (1971)
  11. 徐善述·徐善繼, 明堂全書, 韓松溪譯, 明文堂, (1975)
  12. 米田美代治,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申榮勳譯 東山文化社, (1976)
  13. 申榮勳, 韓室과 그 歷史, 韓國建築史大系 I, 에밀레 美術館, (1975)
  14. 申榮勳, 韓國古建築斷章上, 下, 韓國建築史大系 II, 에밀레 美術館, (1975)
  15. 朴容淑, 韓國美術論, 一志社, (1975)
  16. 朴容淑,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一志社, (1976)
  17. 林忠伸外, 의인 점마을—안동별 수물지구 취락 형태 현지조사 울산공대연구논문집, 제7권 2호 (1976)
  18. 林忠伸, 母空間의 原型: 山과天, 울산공대연구논문집 제8권 2호, (1977)
  19. 張聖浚,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關한 考察, 大韓建築學會誌, 第22卷 第85號, (1978)
  20. 李熙奉, 韓國建築에 記號學的 構造의 適用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工學碩士論文, (1978)
  21. 玄斗鎔,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論文, (1977)
  22. Mi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宇宙와 歷史), 鄭鎮弘譯, 現代思想社, (1976)
  23.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a Harvest Book, (1959)